

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학적·객관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.

- G7 기후·에너지·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 관련 정부입장 -

- 오늘 오후 주요 7개국(G7)*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기후·에너지·환경 장관회의(4.15~16)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**을 발표했다.

* △미국, △캐나다, △독일, △영국, △프랑스, △이탈리아, △일본

** △“폐로 작업의 착실한 진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,” △“ALPS 처리수가 IAEA의 안전기준 및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,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,” △“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독려”

- 우리 정부는 G7 기후·에너지·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(IAEA) 모니터링 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서,
-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,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조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임현진 (044-200-2379) 신부섭 (044-200-2380)
<공동>	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김기현 (02-2100-7794) 이상민 (02-2100-7746)
<공동>	원안위 방재환경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심은정 (02-397-7351) 김수일 (02-397-7359)
<공동>	과기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박시정 (044-202-4660) 이도연 (044-202-4663)
<공동>	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오행록 (044-200-5280) 목정임 (044-200-5287)
<공동>	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송성옥 (043-719-2170) 강성필 (043-719-2160)